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전국민고용보험 최종 정리를 위한 논의 지속

송해순 전문위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안개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협약’(20.7.28.) 이후, 제3장인 사회안전망 확충 내용(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부과·징수 분야와 재정확충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발제를 청취했다. 제29차 전체회의(20.9.18.)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사회보험 부과 현황을, 제30차 전체회의(20.10.8.)에서는 사회보험 부과·징수 국가별 사례(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와 전 국민 고용안전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제31차 전체회의(20.10.23.)에서는 모성보호 급여(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와 관련하여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공의회(20.11.6.)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정리 내용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공의회에서 마련된 전 국민 고용보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